

# 후임 감독, 한국인 내정? 애국심 강한?...축구협회 “사실과 달라”

대한축구협회, 추측성 언론 보도에 입장 밝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후임 감독 선임”

대한축구협회가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자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최근 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일부 언론 매체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한국인 지도자로 내정’, ‘연봉은 10억 이하’에다, 심지어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와 같은 조금 황당한 조건까지 보도되는 상황이다. 특정인의 이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결론적

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 축구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에 오르며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벤투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후임 감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큰 틀에서 국내 감독으로 기준을 정하고 선임할 것인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협회는 “의명의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운 뿐더러, 실력 협회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견일 뿐이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협회 국가대표전략 강화위원회가 맡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첫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향후 우리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며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한국인, 외국인 여부를 말할 때가 아니며, 연봉 등 세부 조건은 더더욱 거론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년 전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본 것처럼 당시에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나 ‘축구계 정보에 밝은 소식통’ 등 익명을 이용한 수많은 추측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실제 결론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축구팬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과거 사례를 참고해 협회의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선분은 예단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성적을 거둔 한국 축구대표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KIA 나성범, 7년만에 골든글러브에도 자책

지난 10월 KT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내 실수로 흐름 바뀐 것 같아 죄송”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KIA 나성범이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특급 외야수 나성범이 7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에도 환한 미소를 짓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난 10월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실책이 남아 있었다.

나성범은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정후(키움), 호세 피렐라(삼성)와 함께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총 31표 중 202표(득

표율 64.5%)를 받으며 NC 다이노스 시절이던 2014,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인 3번째 황금장갑을 거머쥐었다.

나성범은 2022시즌에 앞서 6년 총액 150억원에 KIA와 계약했다. 그리고 첫해를 맞아 144경기 타율 3할2푼 21홈런 97타점 OPS .910으로 몸값을 입증했다. KIA를 4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로 이끈 활약이었다.

수상 후 나성범은 “KIA와 6년 계약을 했는데 일단 1년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좋은 보답도 받았다. 이 기세를 이어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성범은 2017년 최형우, 로저 버나디나 이후 5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KIA 외야수가 됐다. 그는 “수상 후 잠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최)형우 형 메시지가 와있었다. 단체방에 축하 인사를 해줬다”라며 “답장을 쓰려고 하려는 찰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 자리에 KIA 선수들이 수상자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50억원 대박 FA 계약에 이어 7년 만에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한 나성범. 그러나 두달 전 가을야구의 아쉬움 때문에 마냥 시상식을 즐길 수 없었다. 나성범은 10월 13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치명적인 실책으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0-2로 뒤진 3회 2사 2루 상황에서 앤서니 알포드의 타구를 뒤로 빼트리면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헌납했다.

나성범은 “올해 좋은 성적을 냈지만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는 한해이기도 하다”라고 운을 떼며 “가장 후회되는 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다. 팬들께서 많이 기다린 경기였을 텐데 내 실수로 흐름이 바뀐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나성범은 가족여행을 통해 지친 심신을 회복한 뒤 본격적으로 2023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매년 가족여행을 갖는데 작년에는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여행을 가지 못했다”라며 “올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냈고, FA도 다 끝났으니까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준비 잘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

## 광주장애인배드민턴 이정수,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정수(전대사대부)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태극마크에 한발 더 다가갔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이정수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수는 이번 대회 남자 단식 SU5(지체장애) 부문에 출전해 국내랭킹 2위와 4위 선수들을 모두 2대 0으로 꺾었다.

또 천적인 국내랭킹 1위인 김기연(서울의료원)을 2대 1로 이겨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대회 랭킹포인트 3위였던 이정수는 이번대회 우승으로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려 2장의 국가대표 선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수는 초등학교 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수영,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는 빙상 선수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았다. 중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접한 이정수는 실력이 급성장해 지난 2019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되기도 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정수가 배드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이정수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민턴 국가대표에 선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질주’

선수·동호회·일반인 이용가능...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전남도는 겨울철 선수와 일반인이 자동차경주장을 주행하는 ‘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운영을 위해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동계시즌은 2023년 3월 19일까지 총 12차 58일간 운영된다.

매주 수·목요일은 F1코스를 주행하는 선수와 동호회 주행을 위한 단체임대가 진행된다. 금요일과 주말은 일반인 등 서킷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1주권’과 ‘1일권’으로 구분 판매한다.

경주장은 자동차 정비공간(피트)이 분리돼 있고 참가인원 간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간 참가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연인원 2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참가자의 90% 이상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경주장을 방문하고 있어서 비수기를 맞은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조대호기자

## 2023 KLPGA 투어 개막전 박지영 우승

최종일 낙뢰로 경기 취소 결정

박지영(26)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지영은 11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총상금 110만 싱가포르 달러) 3라운드 경기가 낙뢰로 취소되면서 2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정상에 섰다.

전날 2라운드까지 박지영은 11언더파 133타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날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50분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낙뢰에 의해 중지됐다. 이후 총 4차례 중단되면서 정오까지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다.



KLPGA 투어 경기위원회는 결국 3라운드 경기를 취소하고, 2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지영은 지난 4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이후 8개월 만에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을 맞았다.

## KIA, 우완 투수 메디나 영입...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

KIA 타이거즈가 우완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26)를 영입하며 2023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KIA는 11일 메디나와 계약금 3만6000달러, 연봉 30만달러, 옵션 30만달러 등 총액 63만6000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메디나는 신장 185cm, 체중 84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을 뛰었다.

2014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계약하고 MLB 도전에 나선 메디나는 2020년 빅리그 무

대를 밟았다.

MLB에서 2020년 1경기, 2021년 4경기 등판에 그쳤던 메디나는 올해 뉴욕 메츠 소속으로 MLB 14경기에 등판, 23%이닝을 던지며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6.08을 기록했다.

올 시즌 트리플A에서는 18경기(선발 2경기)에서 31이닝을 소화하며 1승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65의 성적을 거뒀다. 메디나의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135경기(선발 106경기) 36승 33패 2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점 3.83이다.

KIA는 “메디나는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과 결정구로 던지는 실력이 워낙적이다. 슬



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진다”며 “특히 빠른 구속에도 제구가 안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뉴스